

1. 사랑하는 내 가족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친구를, 동료들, 교우를 그 곳에서 다시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진짜 만나볼 수 있는 걸까? 어떤 모습으로 만난다는 것이지? 이런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두 주에 걸쳐 이 두 가지 궁금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진짜 만나볼 수 있을까?”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날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애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 버린 겁니다.

그때 바울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몸이 다한 상태를 잠든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재회 못하나 여기 삶이 종료가 되면 끝인가라고 불안해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놓치지 말아라 희망을 갖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희망의 근거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께만 국한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 살아 있는 자들과의 함께 됨을 강조합니다. 그 부활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난다는 재회의 장면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이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것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우리 전에 잠든 사람들과의 재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성경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천국에서의 만남"이라는 소망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슬퍼하지 말라"는 권면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받나요?

→ _____

- 죽은 사람과 다시 만난다는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경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 _____

- 부활과 천국에서의 재회가 단순한 상징이나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성경의 증언을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관계와 삶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 _____

- “사랑하는 사람과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현재의 슬픔, 상실, 두려움과 연결될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깊은 슬픔과 허무 속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도 흔들림 없게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처럼, 잠든 자들이 다시 깨어나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그리움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하여,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며 장차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